

신입사원 만난 최태원 “패기·딴체인지로 뉴SK 만들자”

(SK 회장)

39년째 이어온 ‘신입사원과의 대화’ 공유가치 없으면 보유가치도 없어 혁신적인 ‘공유 인프라’ 실천 당부



최태원 SK 회장이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청운체육관에서 열린 2018년 그룹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패기와 딴체인지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SK 회장이 2018년 그룹 신입사원들에게 “패기와 틀을 깨는 사고로 뉴(New) SK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16일 SK그룹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15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청운체육관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에서 “기존 기준과 규칙으로 굴러가지 않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SK그룹의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1979년 고(故) 최중현 선대회장이 신입사원들에게 그룹의 경영 철학과 비전 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시작한 뒤 올해로 39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최 회장은 “새 시대의 인재는 패기와

함께 삶과 일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이를 통해 생명력 넘치는 기업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세상의 행복을 더 키우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

다”고 강조했다. 특히 “SK의 ‘딴체인지’를 위한 ‘사회적 가치’와 ‘공유인프라’라는 화두를 짚어지고 나갈 사실상의 첫 세대”라며 소명

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기업의 안정과 성장을 위해서는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데, ‘공유 인프라’와 같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려는 것도 이 때”라고 덧붙였다.

공유 인프라 범위 등과 대한 한 신입사원의 질문에 최 회장은 “우리 인프라를 외부와 공유하면 손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면서 “그러나 공유할 가치가 없다면 보유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으로 공유 인프라 전략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앞서 최 회장은 최근 그룹 신년회를 통해 올해를 공유인프라 등을 통한 ‘딴체인지’로 비즈니스 모델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경제·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뉴 SK의 원년으로 선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회장, 박성욱 글로벌 성장위원장(SK하이닉스 부회

장), 박정호 ICT위원장(SK텔레콤 사장), 김준 커뮤니케이션 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서진우 인재육성위원장, 최광철 사회공헌위원장과 주요 관계사 사장 등 경영진 20여명과 신입사원 1600여명이 참석했다.

조대식 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은 신입사원들에게 “뉴 SK를 선언한 첫 해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한 여러분들은 우리 그룹의 소중한 자원”이라며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회사생활에 임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최 회장과 주요 관계사 사장들이 신입사원들과 즉석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토크 콘서트’ 형태로 열렸다. 최 회장은 패널로 참석한 신입사원들과 기념 ‘셀카’를 찍는 등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SK가 서울 워커히 호텔에서 열린 신입사원과의 대화는 SK하이닉스에서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metroseoul.co.kr

한화첨단소재, 中 자동차시장 공략 속도

세번째 충칭공장 본격 가동 현대차에 경량화부품 공급



한화첨단소재 충칭공장 전경. /한화첨단소재

한화첨단소재가 현대자동차에 경량화 부품을 납품한다.

한화첨단소재는 중국 충칭 공장에서 생산하는 자동차용 경량화 부품이 올해 초 현대자동차 충칭공장에 공급되기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첨단소재 충칭공장은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중국에 위치한 세 번째 생산법인이다. 4만5000㎡ 부지에 8620㎡ 규모로 지난해 8월 완공된 이후 4개월에 걸친 시험생산을 마치고 최근 상업생산을 시작했다.

충칭공장은 연간 40만대 분량의 완성차에 부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주요 제품은 자동차용 범퍼빔과 언더커버, 스티프너, EPP 성형품 등이다. 주요 고객은 북경현대차와 장안포드, 중국 현지

기업인 장안기차와 길리기차 등이다. 회사 관계자는 “충칭공장은 베이징, 상하이 공장과 함께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고 말했다. 자동차용 부품은 한화첨단소재 전체 매출의 약 80%를 차지한다. 또한 한화첨단소재의 8개 해외법인 중 3개가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 있다.

한화첨단소재는 중국 전기차 시장 확대에 발맞춰 GM, BMW 등을 상대로 전기차용 배터리케이스 공급 확대를 위한 수주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달 한화첨단소재 베이징 법인을 방문해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다. /오세성 기자 sesung@



현대로템이 제작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교. /현대로템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탑승교 설치 완료

현대로템 488억 사업, 총 64대 제작 수차례 점검, 각종 안전시스템 적용

현대로템은 오는 18일부터 정식 개장하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사용되는 탑승교가 1년 여의 현장 설치와 시운전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용을 앞두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탑승교는 공항에서 여객터미널과 항공기를 연결해 승객이 편리하게 타고 내리

도록 하는 터널형 이동식 통로다. 항공기 이착륙시 발생하는 먼지와 악천후로부터 승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사용되는 총 64대의 탑승교는 전부 현대로템이 제작했으며 지난 2014년 약 488억원 규모로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수주한 사업이다. 현대로템은 64대의 탑승교 모두 당진공장에서 생산해 2017년 9월 인천국제공항에 설치를 마무리하고 현재 마무리 보완 작업 중에 있다.

현대로템은 탑승교를 위한 전용 도장 라인을 운영해 도장품질을 확보했으며 전용 지그(제작·가공을 위한 보조용 기구)와 로봇용접기를 이용해 균일한 고품질의 제품을 탄생시켰다. 또 탑승교의 조기 품질 안정화를 위해 운용 전 인천공항공사와 함께 수 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실시했으며 운용 후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탑승교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전과 유지보수 교육을 실시해 각종 운용상의 문제점과 안전 사고에 대비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품질관리와 성실시공으로 인천국제공항의 성공적 개항에 일조한 점을 인정 받아 지난해 9월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현대로템이 제작한 탑승교의 외부 유리는 방화성능이 개선된 접합강화유리를 적용해 항공기 화재시 피난통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충돌방지시스템을 적용해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항공기와 탑승교가 접현하거나 분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충돌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한편 현대로템은 지난 1986년 김포공항 탑승교 사업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탑승교 사업을 수주하고 있다.

/양성근 기자 ysw@

‘1가구 1건조기 시대’ 임박?

LG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돌풍

이전 모델보다 판매량 3배 높아 일시적으로 물량 부족 현상까지



LG전자가 지난달 출시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트롬 건조기(사진)의 4주간 판매량이 직전 모델의 출시 초기 판매량 대비 3배 이상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LG전자가 최근 2주 동안 판매한 전체 건조기 가운데 3분의 2가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신제품이다. 일부 유통에서는 구매자가 몰리며 일시적으로 물량이 부족한 현상까지 나타날 정도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전자는 신제품의 낮은 전기료, 짧은 건조시간 등이 건조기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봤다.

한국에너지시험연구원(KATRI)의 시험 결과에 따르면 세탁물 5kg을 표준코스로 건조하는 경우 전기료는 ‘에너지모드’ 기준 117원에 불과하다. 또 ‘스피드모드’를 이용하면 80분대에 건조가 끝난다. ‘살균코스’는 황색 포도상구균, 녹농균, 폐렴간균 등 유해 세균들을 99.99% 없애준다.

LG전자가 신제품에 적용한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는 건조기의 핵심 부품인 컴프레서에서 냉매를 압축하는 장치인 실린더가 2개로 기존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

에 비해 한 번에 압축할 수 있는 냉매량이 15%까지 늘어나 효율과 성능이 높다. 건조기에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내 업체 가운데 LG전자가 유일하다.

또한 제품에 표시되는 예상 건조시간의 정확도를 높인 ‘스마트 타이머’, 고객이 제품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문이 열리는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는 ‘양방향 도어’, 콘덴서 자동세척 LED 알림 등 신제품만의 차별화된 편의 기능들도 고객들로부터 호평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60만 대 수준이던 국내 건조기 시장이 올해 70% 가까이 성장해 100만 대를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전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방식의 트롬 건조기가 1가구 1건조기 시대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미 기자

니콘이미징코리아 소비자 따라 강남으로 본사 이전

소비자와 소통 확대 등 새단장

니콘이미징코리아가 소비자와의 접점 확대를 위해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본사를 강남구 역삼동 포스코센터로 이전한다고 16일 밝혔다.

니콘이미징코리아는 이번 본사 이전을 통해 소비자와의 거리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고객지원센터는 새롭게 재단장하고 니콘 쇼룸을 신설해 고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롭게 선보이는 쇼룸은 니콘의 다양한 카메라와 렌즈, 액세서리 제품 등을 한 곳에 보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

로 구성됐다. 신인 작가, 일반인들의 작품들을 전시하는 니콘 포토스퀘어도 운영해 사진 문화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니콘 스쿨 교육장도 전국 7곳에서 8곳으로 확장한다. 기존 서울에서 운영했던 대한상공회의소 교육장은 폐쇄하는 대신 강남 포스코센터(14층)와 서울역 회의실(4층)에 교육장을 마련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카타바타 히데유키 니콘이미징코리아 대표이사는 “올해는 니콘의 브랜드 정체성을 더욱 확고히 다지고 소비자와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성 기자